| 불자 세상보기 |

핵발전소 다시 생각합시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

경주 지진 1년 만에 또 강진
국내 24기 핵발전소 주위로
올해에만 37번 지진 발생해

지진 1년 동안 무엇 대처했나
활성단층지도 마련 전무 상황

거대 기계 안전성 담보 힘들어
핵폐기물에 미래 안전 불투명
핵발전소는 지금 당장 멈춰야

수능 바로 전날인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에 비해 흔들림이 컸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지진이 감지될 정도였다. 포항 지역의 지진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다. 지진이라는 천재지변으로 결국 수능 시험이 일주일 뒤로 연기됐다.

포항보다 1년 2개월 전에는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있었다. 지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진 발생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으니 내진설계를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지진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경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은 바로 인근에 있는 핵발전소였다. 경주 월성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특히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다했는데도 10년을 연장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포항과 월성핵발전소 사이의 직선거리는 대략 45km, 포항시 북구에서 고리 핵발전소까진 대략 80km 정도 떨어져있다. 게다가 경주 지진 이후 전문가들은 핵발전소 밀집 지역 아래로 활성단층대가 여럿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국내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 부지 반경 50km 이내에 올해에만 37번의 지진(규모 2.0~3.3)이 발생했다. 2015년부터 지난 10월말까지 핵발전소 지역에서 23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이제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잦은 지진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활성단층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번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1/4정도였지만 그 피해가 훨씬 컸던 까닭은 경주 지진의 경우 진원지가 15km이었지만 포항은 9km 정도로 얕았기 때문이다. 작년 경주 지진 직후 세계적 지진전문가인 가사하라 준조 도쿄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여러 지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표 가까이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놓았을까? 국내에는 활성단층 지도 자체가 없다. 다시 말해 활성단층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조사도 없이 핵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진경보보다 시급한 것이 내진설계다. 게다가 포항시 북구 일대 30여 곳에서는 지진 진동으로 지하수가 모래 토양과 뒤엉키며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마저 진행되고 있다.

포항에서 첫 지진이 나고 20여 분 후,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것이 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핵발전소는 한 사람이 전체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 기계다. 지난 6월 19일 영구 폐쇄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규모가 여타 핵발전소 가운데 가장 작다. 그런 고리 1호기에 배관이 170km, 전기선이 1700km, 연결밸브가 3만개, 용접부위가 자그마치 6만 5000여 곳 있다.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으로 이 많은 배관과 전기선, 연결밸브, 용접 부위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핵발전소의 정상사고를 얘기했다. 핵발전소는 정상 상태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리만치 복잡한 거대기계이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이 정도라면 이후 건설된 핵발전소의 상황은 얼마나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할지 그저 예측만 할 뿐이다. 포항에서 270여 km 떨어진 서울도 꽤나 흔들렸다. 과연 핵발전소의 안전을 지진 발생 후 20분 만에 결론내릴 수 있을까?

유정물, 무정물이 중중무진 상호의존적인 관계성 속에 놓여있다는 부처님 가르침과도 상반되는 것이 핵발전소다. 핵에너지는 공존이 아닌 핵의 분열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핵 아래에서 생명 하나하나는 그저 미물에 불과하리만큼 핵은 힘을 중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물질이다. 남겨진 핵폐기물로 미래세대의 평화는 이미 저당 잡혀 있다. 그러니 핵발전소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社說

軍법요집 개정, 환영한다

조계종 군포교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전망이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국방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판형을 유지해 온 국군법요집을 전면 개정하여 군승 파송 50주년인 내년부터 본격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군포교는 청년포교의 살아있는 현장이다. 매년 10만 명이 넘게 훈련소에서 수계를 받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법당에서 장병들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요집의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연대급 이상을 제외한 일선 부대의 법당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법요집 의존도가 높다.

전면 개정되는 법요집은 칼라일 뿐만 아니라 사진과 용어풀이도 함께 있다고 하니 장병 신행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군종교구는 맞춤형 법요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경전을 소개하는 책자와 모음집, 전시에 사용 가능한 법요집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군 신행활동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이어졌으면 한다. 군장병을 위한 불교 만화를 비롯해, 불교 편지지 등 신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많다.

물론 이런 일은 조계종 군종교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개개인의 뜻있는 후원도 절실하다.

군포교는 청년포교의 다른 이름이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가장 춥고 배고플 때다. 이럴 때 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목마른 이가 우물을 만나고, 배고픈 이가 따뜻한 쌀밥을 접했을 때와 같다. 군승파송 50년을 맞아 군종교구가 다양한 군포교 혁신안을 준비하는 지금, 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야 한다.

종지협 20주년에 부쳐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20돌을 맞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종지협은 11월 24일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7대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해 창립 20주년을 축하했다.

종지협은 IMF 외환위기로 혼란스러웠던 1997년에 창립됐다. 당시 국민 심성계도와 종교간 화합과 사회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종지협은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민족종교가 모인 연합기구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기구이기도 하다.

불교에서는 월주 스님(1대)을 시작으로 정대 스님(5대), 법장 스님(6대), 지관 스님(7대), 자승 스님(9 · 10대)이 의장직에 올랐다.

창립 이래 종지협은 대한민국종교예술제 · 이웃종교 성지순례 등 종교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행사들을 진행해 왔다. 또한 환경 · 독도 문제 · 통일 등 사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적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20주년을 맞은 종지협은 미래의 20년을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특히 △종교간 화합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윤리, 도덕성 회복 등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사업 △통일 대비 민족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다. 해외에서 보여지는 극심한 종교 갈등을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 불씨는 내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간 화합은 미래의 평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 종지협이 앞으로도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위해 꾸준한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국토부, 문화유산 가치 상기하길

"최근 벌어진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명 삭제 문제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11월 21일 김종진 문화재청장에게 일갈한 내용이다. 취임 인사차 방문한 정부 관료에게 신임 총무원장 스님이 뼈아픈 지적을 한 것은 그만큼 현재 사태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과 문화재가 사라진다는 사실은 지난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제기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한국불교 명찰(名刹)들의 이름 등을 삭제를 추진한 것은 현행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31일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고속국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중 건조물 · 사적지 · 경승지 표지가 제외됐고, 2006년부터는 국가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등록한 세계문화유산도 표시할 수 없게 변경됐다. 이렇게 될 경우 해인사, 불국사 등 세계 유산을 보유한 사찰부터 지역 명찰(名刹)들은 고속도로 표지판서 사라지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교계는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표지판 철거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현재 국토부는 관련 지침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교계의 불만은 좀처럼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1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통사찰은 온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전통문화의 보고다. 안내를 부정하는 것은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거된 68개의 사찰 표지판을 복원하고 현 지침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미 불교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전력이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부가 국가 제작 전자지도에서 사찰을 삭제한 '알고가' 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8.27범불교도 대회'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치고,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국토부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팔만대장경, 석굴암 등을 단순한 '종교 시설물'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불교문화유산과 직접 연결된 고속도로 표지판 문제를 타종교계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주변에 널려 있는 빨간 십자가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선조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국가에서 수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한 것은 그 가치가 높고, 보존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를 문화유산이 아닌 시설물정도로 보고 표지판에서 넣고 빼고를 판단하려 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잘못된 것은 빠르게 바로 잡는 것이 상책이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했다. '제2의 알고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겸 편집인 : 박종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